“종교가 심화될때 화쟁 북돋워져”

화쟁아카데미, 2월 28일 ‘경계너머, 지금여기’ 첫 포럼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각자가 속한 종교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온 세 학자가 모였다. 조성택(불교), 김진호(개신교), 김근수(가톨릭) 세 교수는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사회에서 문제적 위치에 처한 종교의 앞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모임 이름도 ‘종교를 걱정하는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다. 조성택 교수가 이끌고 있는 화쟁문화아카데미는 2월 28일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해방신학연구소, 새길기독사회문화원과 함께 서울 사간동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한국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였다.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의 발제 후 나머지 두 패널들이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캐나다 리자이나대)의 기조강연도 있었다. 오 교수는 ‘화쟁’에 대해 이야기하며 불교와 그리스도교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종교든 내부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며 탐진치에 찌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표층 종교와 이해와 깨달음, 진아(眞我)를 내세우는 심층 종교로 나뉜다”며 “하나의 종교 내부에 존재하는 표층-심층 거리보다 각 종교의 표층간, 심층간 거리가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불교 내에 존재하는 깨달음(심층)은 기복신앙(표층)과 떨어져있지만 새로운 세계관을 지니라는 기독교의 ‘회개’와는 상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한국 종교인 절대다수가 ‘나’ 혹은 ‘우리’만 아는 표층 신앙에만 머물러 있기에 배타주의, 교세확장주의 등 각종 병폐를 낳고 있다고 진단한 후 “종교가 심층으로 심화될 때 화쟁을 북돋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각 종교 성찰
‘깨달음’ 위주 종교 권위화 우려
오강남 교수 기조강연서 ‘화쟁’ 강조

오 교수의 강연처럼 이날 토론에 나선 세 명의 패널 역시 서로의 종교가 가진 문제점을 공유했다.

조성택 교수는 “깨달음이라는 ‘체험’을 불교의 요체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종교를 사적화, 밀실화시키는 것”이라며 “깨달음을 소수 선택된 자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특권화 시킴으로써 재가자들을 출가자들의 수행을 지켜보는 관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깨닫지 못하면 어떤 비판도 의심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불통의 상황을 한국불교는 적절히 신비화해 자신을 숨기는 은폐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종교를 걱정하는 불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가 화쟁아카데미 주최로 2월 28일 열렸다. 좌로부터 사회를 맡은 성해용 서울대 인문학 교수, 조성택 화쟁문화아카데미 대표,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실장,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이에 대해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실장은 “기독교 내 절대적 믿음의 도그마(dogma · 獨斷)는 신앙생활에서 강력한 규범으로 자리잡았지만 막상 신자들은 믿음이 뭔지를 묻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히 답하지 못한다”며 “이는 깨달음을 우러러보지만 막상 그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불교신자들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 역시 “불교에서 깨달은 이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권력이 형성되는 현상은 가톨릭 성직자들이 신도들에게 은총을 생산 · 분배하며 권세를 누리고 내부 민주주의를 틀어막고 있는 모습과 닮아있다”고 꼬집었다.

세 학자 모두 종교내부에서 특권화된 지식과 권력이 종교적 성찰을 방해한다는데 동의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무종교인이라고 응답했지만 현실은 종교가 더 필요한 시대라는데 공감하며 앞으로 종교가 현실의 고통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응답해왔고 응답할 수 있을지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포럼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개최되며 다음 세미나는 3월 28일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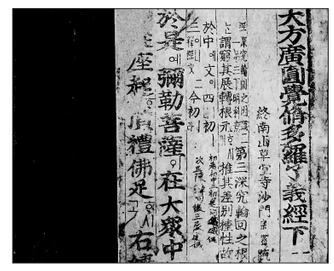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경 간행 전문활자본 보물 지정

을유자로 찍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등 성보 15건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월 3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등 성보 15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보물 제1219-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 1의1~2, 2의1~2’는 세조 11년(1465)에 간경도감에서 국역한 책을 바탕으로, 한글 구결(口訣) 부분만 편집하여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한 불경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을유자는 불경 간행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당시 유신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전본(傳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선 시대 국어학과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05년에 조성된 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각승 원오 스님의 현존 최초 작품이자 그의 작품 특성이 잘 드러나는 현존 최고(最高)의 대작이다.

이 밖에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 ‘영천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보은 법주사 동종’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 ‘부여 무량사 삼전패’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 · 달마대사 벽화’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 ‘삼국유사 권1~2’ 등이 포함됐다.

이중 무량사 삼전패는 정확한 제작 연대와 제작 장인들을 알려주는 묵서명(墨書銘)이 있고,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의 편년과 도상(圖像) 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크며 삼국유사 권1~2는 기존 판본의 해독이 힘든 글자를 풀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서 의미를 지닌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문예연구’ 제4집 발간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제4집을 펴냈다. ‘불교상담을 통한 청소년문제 해결방안’을 특집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관련 논문으로 △정미숙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의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해결을 위한 불교 상담-심우도를 중심으로’ △황임란 한남대 겸임교수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영성적 이해와 불교 상담의 시사점’ △서신자 목포대 외래교수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 고찰’ 등이 실렸다. △김재옥 송원대 겸임교수의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래상자치료 사례 △전현주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만다라 도형심리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도식에 관한 연구(전현주)가 실려 있다.

투고 논문으로는 △강명희 금강대 학술연구교수의 부정관 폐해에 대한 경율 간상위 고찰 △정영식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무위진인 의미의 변천과 그 비판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詩, 억압 · 단절에 대한 치유의 도구”

권성훈 시인, ‘폭력적 타자와…’서 불교시 치유 조명

불교 사상을 천착한 시의 치유능력을 조명한 연구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권성훈 시인(고려대 연구교수)는 최근 불교 등 종교시가 가지는 치유력을 연구한 〈폭력적 타자와 주체들〉을 펴냈다.

그는 이미 한국종교학회 학술지 ‘종교연구’ 제70집에 게재한 ‘한국불교시에 나타난 치유성 연구’란 논문을 통해 “불교시가 불교 사상을 포괄하는 심층적 기표로서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종교시가 가지는 다양한 파급력을 조명해온 바 있다.

권 시인은 최근 발간한 〈폭력적 타자와 주체들〉에서 ‘제7장 불교시, 그 치유의 미학’과 ‘제10장 조오현, 헤에로파니에 도달한 비극적 존재’ 두 개의 챕터를 통해 불교시가 가지는 매력을 풀이했다.

그는 7장에서 한용운 · 김달진 · 오현 스님을 통해 한국 불교시의 특징을 재조명했다. 권 시인은 한용운의 시가 ‘님’이란 시어의 반복을 통해 감정의 정화에 이른다고 풀이했다. 시적 리듬을 그대로 방출하지 않고 절망과 억압에 대한 조절을 가능하게 해 ‘감정 정화’와 ‘정서 순화’라는 치유성을 보인다는 게 권 시인의 주장이다.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에 대해서는 “인간 본연의 존재를 우의적(寓意的)으로 들여다본다”고 말한다(7장). 또한 “그의 선시는 ‘버려진’ 비극적 현실을 ‘언어적 명상’으로 ‘벼리고’ 온 ‘한국 선시’의 성전에 바치는 ‘선시조의 경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10장)

불교시에 대해 권 시인은 “불교시는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현실세계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속되고 적멸하는 것 사이에서 발현된다”면서 “불교시는 ‘자기성찰의 언어’이자 현실세계의 억압과 단절을 극복한 ‘치유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재硏 ‘한국의 사지’ 발간

충청지역 374개 사지 내용 담아… GPS좌표 기록, 현황지도 수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최근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지역 사지에 대한 각종 문헌조사와 정밀현황조사 결과를 모은 〈한국의 사지-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편〉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 보고서는 2010년에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지역 1,362여개소 사지 중 비지정 사지 363개소와 새로 확인된 13개소를 추가해 총 374개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현장조사 후 옛 문헌과 각종 연구자료 등의 성과물을 반영하여 사역(寺域), 식생(植生) 현황, 유구와 유물, GPS(위성위치 추적시스템) 좌표 기록 등 사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사지에서 이동된 문화재들을 조사하여 수록함으로써 사지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12년부터 제작한 ‘사지 분포현황 지도’를 올해도 별책 부록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박물관 등에 소장된 사지 출토 문화재와 소재문화재들의 사진도 함께 실렸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부터 5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대구 · 경북지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미조사사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결과물을 통해 사지와 소재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 ·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대, 시민강좌 ‘목요인문학카페’ 연다

3월 19일 ~ 7월 16일 매주 1, 3주 목요일 오후 2시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는 국립공주박물관과 공동으로 ‘목요인문학카페 : 목(木)요일에 인(人)문학을 이야기하며 삶의 휴(休)식을 찾다’를 주제로 인문학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강좌는 3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월 1, 3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진행되며 ‘몸’과 ‘마음’에서 출발하여 일상에서 늘 만나는 것들을 소재로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권탄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일상 속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시민강좌를 준비했다며, 옛날을 살던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있는 박물관에서 옛날과 현재의 일상을 함께 즐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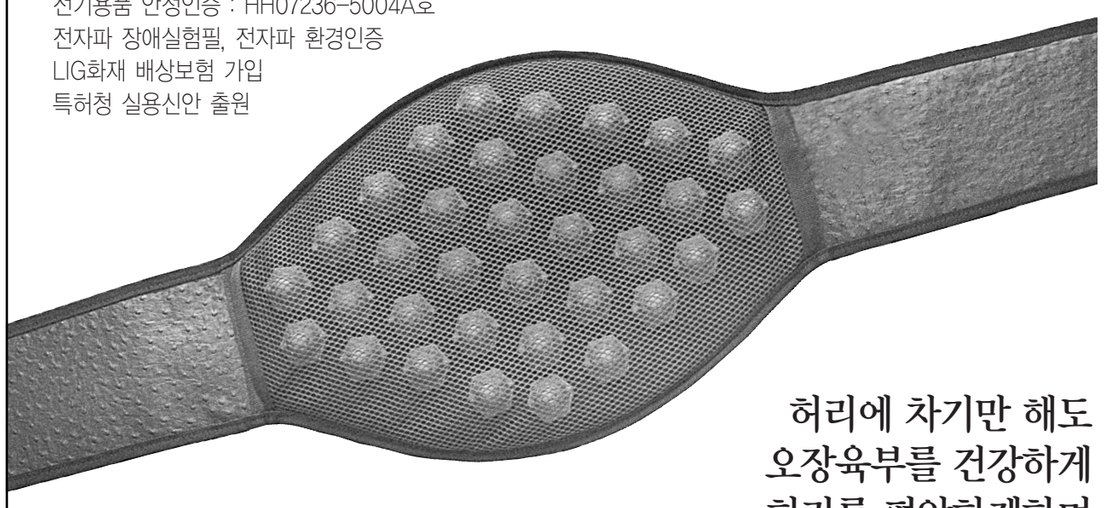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